

생존율 ↑ 치료비 ↓ ...영광군, 폐·전립선암 검진 지원

1년 이상 주소 둔 주민 중 의료수급권자 등 대상
저선량 흉부 CT촬영, 전립선 특이 항원검사비 지원

영광군이 폐암과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통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진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폐암 180명, 전립선암 550명 등 주민 780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 둔 의료수급권자와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9만5183원, 지역가입자는 2만4266원 이하의 건강보험 소득 기준 하위 12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40~70세 가운데 폐 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매일 1갑씩 20년 이상의 흡연 경력을 가진 주민이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CT) 비용 11만원을 지원한다.

특수질병 검진인 전립선암은 50~70세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PSA) 비용 3만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 암검진(폐암)과 재난적 의료비, 직장인 건강검진 등 유사 사업을 통해 해당 암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61-350-4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암 검진을 받지 않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의심 증상자들은 서둘러 검진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박효중 기자



광주시, 내달 부터 장애인 평생교육비 지원

광주시가 장애인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음달 부터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비 6200만원과 시비 2600만원을 더해 총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

해 자치구별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50명씩 총 25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의 프로그램을 35만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평생학습 우수이용자에 대해서는 35만원권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나주시, 마음 아픈 청년들 토닥토닥...우울검진 지원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대한 청춘' 프로그램 운영



나주시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

음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나주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불안·우울감 극복을 위해 신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위대한 청춘(靑春)'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내 마음 살피기-마음 건강 체크(뇌파·스트레스)', '마음 키우기-웃음 치료·자살 예방 교육', '마음 피우기-플라워 테라피·중독 폐해 예방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2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운영된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치료와 연계한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내 동신대·가톨릭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검사, 음주·도박·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상담 부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 우울, 스트레스, 중독 문제와 관련 프로그램 문의는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2개소에 중년쉼터 확대 운영



담양군은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위해 운영 중인 중년쉼터(사랑방)를 지난해 담양읍 2개소에서 올해부터 면 단위까지 6개소로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치 이후 운영하고 있는 담양읍 군민사랑방은 일 평균 25여 명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단체 모임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규 설치된 중년쉼터는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대전면 4개소로,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면 소재지에 설치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 삼호보건지소, 2개 치매안심 프로그램 진행

치매 환자 '청춘학당', 치매 예방 '기억해 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영암군이 이달 4일부터 11월까지 삼호보건지소 내 치매안심센터 삼호분소에서 매주 목요일 인지 재활과 자극을 내용으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청춘학당'은, 하루 3시간 동안 두뇌 학습, 미술·신체 활동 등을 실시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기억해 봄'은, 하루 1시간 동안 인지 학습, 음악·공예·신체 활동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참여자 인지 수준에 맞춰 진행되고, 삼호보건지소 방문이 쉽잖은 어르신들에게는 협약 택시로 이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 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